

일 주 문



강정평화행진 동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된 '강정마을 평화행진'에 동참해 강정마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천태종 하안거 결제
천태종 총무원장 대행 무원 스님은 8월 2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스님과 불자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진년 하안거 결제식을 봉행한다.



법화산림 대법회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8월 22~31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법화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성지순례 및 대중공양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8월 22일 문경 봉암사에서 성지순례 겸 선방대중공양을 봉행한다. (061)782-7600



로터스월드 후원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불영사 열반일주승려사회와 함께 캄보디아 아송센터 지원을 위해 매일 300만원 씩 10년 동안 로터스월드를 후원한다.

“재가불자 교육도량 역할 다할 것”

창립 30주년 준비하는 이상우 동산반야회 이사장



군불교 종사자 무상교육 실시

1대1 결연 통해 군포교 나서

11월 창립 맞춰 교육불서 발간

“재가불자 교육도량으로서 불법의 사회적 회향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동산반야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포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다. 동산반야회는 1982년 창립 이래 최초의 기초교리강좌를 진행하고, 1992년 최초 불교교양대학인 동산불교대학을 설립하는 등 재가불교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동안 배출한 법사 수만 해도 1만여 명에 이른다. 이상우 동산반야회 이사장(사진)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재가불교 활성화를 서원했다. 창립 30주년 첫 행사는 8월 11일 개강한 41기 교육에서 군불교 종사자 무상교육이다. 동산불교대학의 통신문을 통해 군법당 관련 종사자들이 불교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이사장은 “군법당 관리 사병 및 부사관들중 불교지식이 많은 이가 드물어 불교 교리 교육을 요청해 이번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동산 출신 포교사들과의 1대1 결연을 통해 군포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사라고 생각한다”며 “재가불자 교육도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산반야회와 동산불교대학에서는故 김재일 이사장 당시 포교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구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여러 현안으로 대사회 활동이 많이 축소된 상황. 2011년 취임에서 “묵묵히 불교계에서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이상우 이사장은 재가불교 활성화와 함께 대사회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이사장은 “재가불교 근본도량인 동산의 명성에 걸맞게 공의를 모아 다양한 이타행위를 펼치는 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0주년을 맞아서는 <같이 쉽게 풀어 쓴 천수경> 등 재가불자를 위한 불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창립일인 11월 10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경식과 함께 동산반야회 회원의 교우를 다지는 학예발표회, 바자회 등도 열린다. 이상우 이사장은 “불교정법의 대중화, 대승불교의 생활화, 한국불교의 정도화의 설립 취지에 맞게 불법 호포에 적극 나서겠다”며 사부대중의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대행인재장학금 수여

안지현 하버드대학원생에 학비 전액 지원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안지현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2년 대행장학회(이사장 혜수) 인재장학금 수여식이 8월 5일 한마음선원 본원 법당에서 열렸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신도 자녀 가운데 신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인재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미 하버드 대학원 심리학과의 입학하는 안지현 학생에게 수여됐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지난해부터 인재장학금을 받고 있는 김원성 학생(카네기멜론대학 정보시스템학과), 박지는 학생(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도 함께 소개됐다. 대행장학회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2006년 발족한 모임이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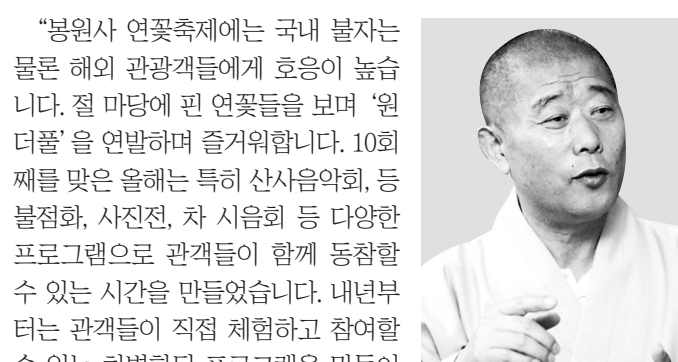
범어사 지백 스님 영결식 염수



부산 범어사 지백 스님 영결식이 8월 5일 범어사 침계루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다비식은 생전 간소하게 치루라는 스님 유언에 따라 부산 영락공원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에서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께서 꿈같은 생애 100년을 마치고 떠나니 이제 다시는 뵈 수 없어 허전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며 “오늘 스님의 세원이 다함을 보고 산새도 슬퍼하고 산하대지가 흐느낀다”고 말했다. 영결식은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의 지백 스님 행장 소개, 조실 지유 스님의 추모법문, 범문사 회주 선래 스님의 추모사, 문도대표 설파 스님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한편, 8월 3일 세수 100세, 범남 67세로 임직한 지백 스님은 194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문경 봉암사 등 전국 선원에서 평생을 수좌로 정진했다. 1978년부터 범어사 해행당에서 주석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늘릴 터”

연꽃축제 10회 맞은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



“봉원사 연꽃축제에는 국내 불자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높습니다. 절 마당에 핀 연꽃들을 보며 ‘원더풀’을 연발하며 즐거워합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는 특히 산사음악회, 등불점화, 사진전, 차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명실 공히 도심사람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제10회 서울연꽃문화축제”를 8월 4~11일 경내 특성도량에서 개최한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남다른 각오를 피력했다. “봉원사는 문화적 인프라가 많아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도량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관심이 높아진 편입니다.”
일운 스님은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을 위한 영산재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언제든지 봉원사를 찾아오면 영산재를 정통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 개최 10년을 계기로 도심의 문화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

해초 스님 순례길 따라 불심 다져

공불련 실크로드 제11차 해외성지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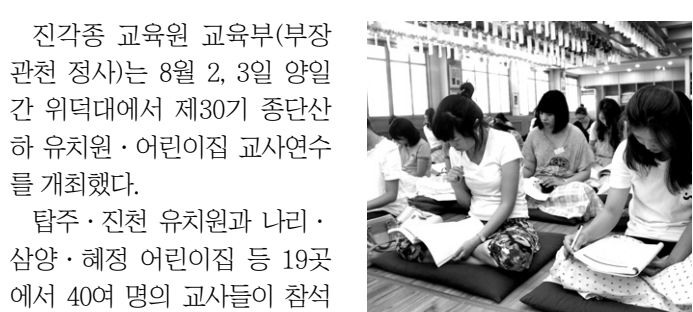
실크로드 성지순례에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다짐하는 공불련 회원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신행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제11차 해외성지순례를 거행했다. 서안을 시작으로 동황 막고굴, 우루무치, 투루판 등 실크로드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에는 송도근 고문(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감사원 등 8개 기관 공불련 회원 및 가족 36명이 참가했다. 김상인 공불련 회장은 “우리나라 해초 스님이 남긴 <왕오천축국적>이 잘 보존돼 있는 동황 막고굴을 비롯해 실크로드 일대 불교 성지를 순례하며 불심을 다졌다”며 “각 기관에서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금강신문 · 금강대 불문연 협력 체결

금강신문사(대표이사 무원) 김천학 금강대 불문연 소장은 8월 6일 금강신문사 사무실에서 협력기관 체결서에 서명했다. 협력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인지도를 극대화한 인적 교류와 홍보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신종일 기자

제30기 진각종 유치원 교사 연수



진각종 교육원 교육부(부장관 정사)는 8월 2, 3일 양일간 위탁대에서 제30기 중단산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연수를 개최했다. 탐주·진천 유치원과 나리·삼양·해정 어린이집 등 19곳에서 4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는 경정 정사의 주제강연에 이어 김수향 위탁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의 ‘진각종의 교리를 유아교육활동과 통합’, 교육국장 범경 정사의 ‘종립교육의 필요성’ 등의 강연과 전통문화다례연구원의 체험활동,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다. 신종일 기자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특차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남경대학, 남경부속 중·고등학교, 재경대학.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수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직업의사(국제중의사) 자격 취득자는 한국에서 의사로서 의료활동 가능

3. 지원자격

-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주지스님 추천사
▶ 합격자 전원 중국대학에서 수업 남경중의학대학 전원기숙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전형제외 : 색명, 색약, 유전(전염병)

※모집기간 : 2012년도 8월 28일까지

5. 문의처

☎ 전화 : 011-472-2782(직통)
☎ 팩스 : 02)511-2028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校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藥大學)